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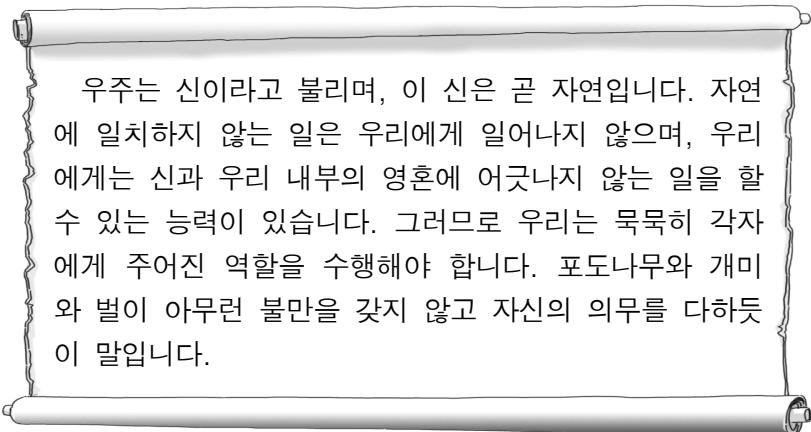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3

1

1. 다음의 가상 연설문을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과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질서를 따른다.
- ②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 삼아 소박하게 생활한다.
- ④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한다.
- ⑤ 유일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계율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2. 밑줄 친 ㉠과 ㉡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어떤 학자는 ‘격물(格物)’을 천하의 사물을 궁구하는 것으로 여겨 “한 포기의 풀과 한 그루의 나무에도 모두 이치[理]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궁구하겠는가. 설령 풀과 나무의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誠意]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 나는 ‘격’을 ‘정(正)’으로, ‘물’을 ‘사(事)’로 풀이하는 것이다.

- ① ㉠: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감정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 ② ㉠: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마음의 이치를 형성해야 한다.
- ③ ㉡: 양지(良知)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구현해야 한다.
- ④ ㉡: 개별 사물의 이치에 마음의 이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 ⑤ ㉠, ㉡: 도(道)를 체득하여 도덕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

- 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②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정직에 대한 앎과 실천 의지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정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거짓말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무위(無爲)로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이시다. 덕(德)으로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되 못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을: 성인이 무위하면 백성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무욕(無欲)하면 백성이 스스로 순박하게 된다.
(나)	

- < 보 기 >
- ㄱ. A: 예악(禮樂)이 흥성해야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
 - ㄴ. B: 본성을 억누르지 않는 다스림이 좋은 정치이다.
 - ㄷ. B: 무위의 덕이 없어지자 효제(孝悌)가 생긴 것이다.
 - ㄹ. C: 무위를 하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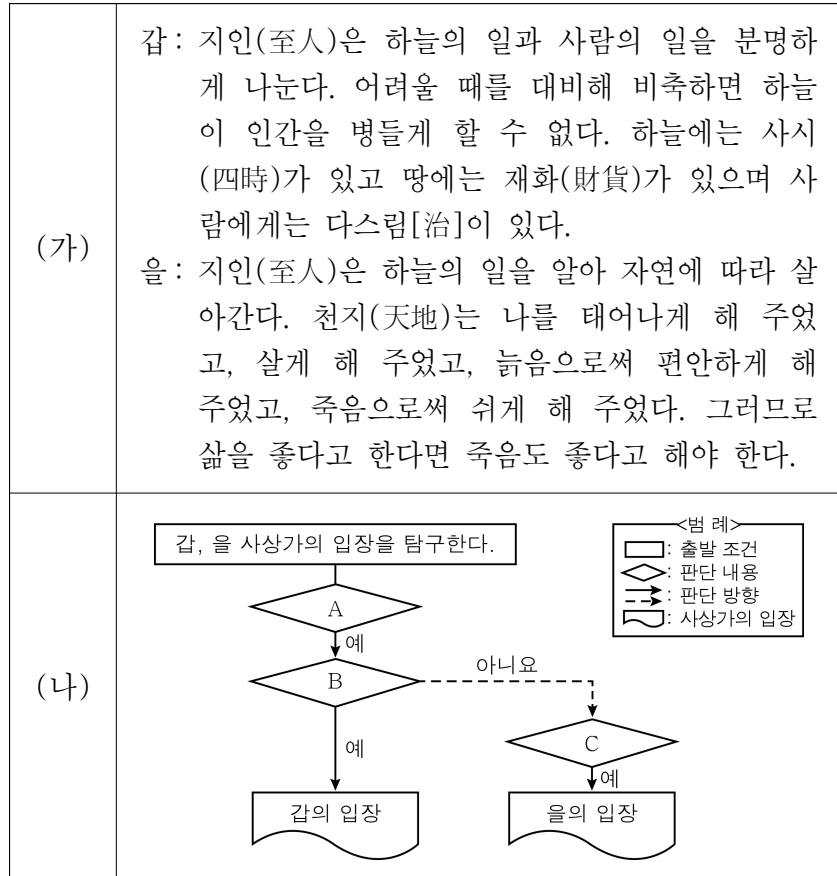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의 삶의 역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사실이고 도덕적 삶의 출발점이다.
(나)	과거 2차 세계 대전 중에 행해진 유대인 학살에 대해 현재 독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① 현재 독일인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② 독일인의 정체성은 독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 ③ 독일 국민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독일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 ④ 현재 독일인 가운데 책임을 지겠다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 ⑤ 과거 독일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현재 독일인과 무관하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6.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자연에서 인간만이 하늘만큼 귀한 존재인가?
 ② B: 자연을 인간 복리의 방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③ B: 하늘을 도덕규범의 근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④ C: 하늘은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가?
 ⑤ C: 하늘은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는 인격적 존재인가?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어떤 사람이 경제 영역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 중 한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를 이유로 다른 영역에서도 성공하고 결국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학생 \ 입장	갑	을	병	정	무
분배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다.	✓			✓	✓
영역 간 경계가 지켜지고 각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하나의 분배 기준이 모든 분배 영역을 통제할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			✓	✓	✓
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이 제거되어야만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8.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최고선을 상정하는 공리주의는 아니다. 또한 윤리적 덕목을 단순히 개인적 속성으로만 보는 덕 윤리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윤리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원형으로 삼아 관계 지속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계발,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열망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도덕적 행동은 정서적 반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ㄴ.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추론 능력의 계발에 달려 있다.
 ㄷ. 의무와 원칙뿐만 아니라 공감과 동정심도 중시해야 한다.
 ㄹ. 모든 행위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9~10]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은 순수한 이(理)의 발현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
 이 없으며, 칠정은 기(氣)의 발현이기 때문에 선악이 모두 있다. 이가 드러남에 기가 순응하면 선이고, 기가 가려서 이가 숨겨지면 악이다.

을: 본연(本然)의 성(性)을 가리는 것도 기이고, 회복시키는 것도 기이다.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이다. 선은 맑은 기가 발한 것이고 악은 탁한 기가 발한 것이다.

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악행의 원인이 이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이기(理氣)가 분리되었을 때 악행을 하게 된다고 본다.
 ③ 을은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야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지[乘] 못하여 악행을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이가 발해야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요임금과 순임금이 맑은 기질을 받아서 성현이 된 것이 아니고, 결왕과 주왕이 탁한 기질을 받아서 악인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선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요순은 저절로 선한 것이고 결주는 저절로 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 ① 본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② 본성에 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③ 요순과 결주의 기질이 서로 다를 모르고 있다.
 ④ 기질의 성이 본연의 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⑤ 요순과 결주가 부여받은 본연의 성이 같음을 간과하고 있다.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의 산물들 중 하나인 국가는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이다. 개인으로나 국가의 구성원으로나 최선의 생활이란 덕이 있는 생활이다.

— < 보 기 > —

- ㄱ.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사회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ㄴ. 개인과 국가는 모두 선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한다고 본다.
- ㄷ.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
- ㄹ. 개인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밋는 바가 있어 선행을 하고 흉년에는 포악함이 많다. 하늘이 내린 바탕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거처하기만 하고 배움이 없다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성인(聖人)이 그것을 근심하여 인륜을 가르쳤다.

- ①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이기적 본성을 조정해야 한다.
- ② 자연적 성품을 해치지 않도록 인위적 규범을 없애야 한다.
- ③ 서로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兼愛] 이로움을 나누어야 한다.
- ④ 외적 규범으로서의 예(禮)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타고난 본성을 잃지 않도록 민생 안정과 교육에 힘써야 한다.

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미는 재료를 모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거미는 자기 속을 풀어내서 집을 짓는다. 꿀벌은 꽃에서 재료를 구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은 꿀벌처럼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하는 것이다.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의 인간은 자연에 대해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
(나)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

- ①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을 타파하라.
- ② 직관적 통찰을 통해 얻은 신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 ③ 이성을 배제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사물을 파악하라.
- ④ 수학적·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라.
- ⑤ 모든 것을 의심하여 확고부동한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라.

14. 다음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에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하게 수행된 일에 대한 긍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고양되는 단결과 협동 정신과 같은 노동 동기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 < 보 기 > —

- ㄱ. 정부는 시장을 신뢰하고 그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ㄴ. 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의 사유를 철폐해야 한다.
- ㄷ. 생산은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ㄹ. 생산 수단 소유자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민중이 해방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가로 열쇠] (A):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라는 왕수인의 학설 (B): 육체, 감수 작용, 상상 작용, 의식 작용, 분별 작용을 순서대로 이르는 불교 용어. 오온(五蘊)</p> <p>[세로 열쇠] (A): 개념</p>

- ① 사회의 개선이나 성장과 무관한 내재적인 가치이다.
- ②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독단적인 인식이나 신념이다.
- ③ 삶과 세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절대적인 규범이다.
- ④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⑤ 실험적 검증을 통해 관념의 진위를 밝히려는 철학이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세간(世間)의 출현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無)는 있을 수 없고, 세간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유(有)도 있을 수 없다. ‘일체가 유다.’라는 입장은 하나의 극단이며, ‘일체가 무다.’라는 입장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나)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 ①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무명(無明)을 추구한다.
- ②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
- ③ 유와 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불성을 형성하려고 힘쓴다.
- ④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 ⑤ 분별적 관념을 잊고[坐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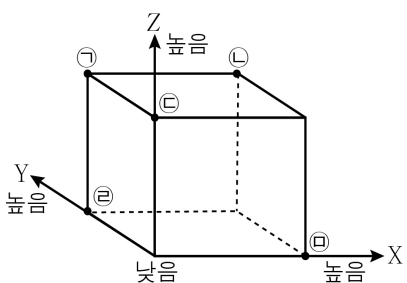
17.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준칙은 습관과 경향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습관과 경향성으로부터 나온 준칙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편적 법칙은 될 수 없다.
을: 쾌락을 증진시키거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도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쾌락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부정하는 금욕의 원리는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

- ① 도덕의 가치는 그것이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 ② 쾌락을 추구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③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의 조화 실현이 도덕의 목적이다.
- ④ 감각적 쾌락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다수의 고통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18.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법이 있다 해도 우리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정도로 국가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모든 타인을 경계하게 된다.
을: 자연법이 있다 해도 이를 집행할 국가 권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오직 자신의 재산 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게 된다.



- X: 자연 상태를 불안과 혼란의 상태로 보는 정도
- Y: 통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정도
- Z: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서양 사상가 갑, 을, 병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신의 존재는 논증될 수 있고, 초월적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을: 신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신 이외의 모든 존재는 양태이며, 양태로서의 인간은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병: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인간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윤리 규범을 따르더라도 자신이 불완전하며 죄인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문	갑	을	병
①	신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예	예	예
②	인간에게는 신을 따르거나 거부할 자유 의지가 있는가?	예	예	아니요
③	자연은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한 인격신에 의해 창조된 것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④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 유일한 최고선인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신은 이성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는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道)를 받았다. 나의 도는 천도(天道)이니,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다. 유의 윤리(倫理), 불의 각성(覺性), 선의 양기(養氣)는 천도의 한 부분이다.
을: 인도(人道)는 인의(仁義)가 주체인데, 근래에 그 주체가 자리를 잃어 크게 어지럽다. 이에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정신과 육체를 함께 발전시켜야[靈肉雙全] 한다.

— < 보 기 > —

- ㄱ. 세상의 모든 진리와 학문은 동방에서 나왔다.
ㄴ.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유일신을 모시고 있다.
ㄷ.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ㄹ.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 인간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